

IT서비스 기업의 안전문화 내재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ternalization of Safety Culture of IT Service Firm

허지웅*
Heo, Ji-Ung

요약

본 연구에서는 IT서비스 기업이 급변하는 사어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한 BCMS 도입을 위하여 IT서비스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의식수준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근속연수가 짧고 상대적으로 젊은 직원들이 나이 많은 장기 근속자보다 안전에 대한 수요가 많았으며,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로그래머들보다 인사, 지원, 회계 등의 지원부서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의 안전의식이 높게 측정되었다. 또한 구성원들은 경영진의 안전에 대한 리더십과 안전의식은 높게 평가한 반면, 회사의 안전 정책 중 성과관리, 절차 준수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하여 개인적 수준의 안전의식보다 조직적 수준의 안전문화 개선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Keywords : BCMS, 안전문화, IT서비스 기업, 내재화

1. 서론

전자정부사업, 기업의 업무전산화를 위한 ERP구축 프로젝트 및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 컨설팅 등으로 고도의 성장시대를 구가하던 전통 IT서비스 기업들은 인터넷의 확산, 스마트기기의 보급 확대 증으로 높아진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신기술의 개발이 절실하게 되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일컫는 요즘에는 ICBMA(IoT, Cloud, Big data, Mobile, AI)로 대표되는 신기술의 등장으로 IT서비스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을 준비하고 있다. 센서 기술을 이용하여 수집된 Big data, 스마트 팩토리, 물류자동화, 클라우드 기술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IT서비스 기업의 근무자들은 더 이상 전산실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며, 사업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근무환경의 변화 속도도 기하급수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다시 말해 엄청난 속도의 사업 환경변화시대가 IT서비스 기업에게 기회가 아닌 위기가 될 수도 있다. 기술 중심으로 사업방식의 혁신이 이뤄지고 있는 IT서비스 기업이 기술개발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핵심기술을 보유한 인력의 확보 못지 않게 사업연속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기업 재난관리체계의 확보가 요구되지만,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건설업에 비해 중대재해의 위험이 낮다는 이유로 경영진을 비롯한 조직 구성원들의 안전의식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2. 본론

본 연구에서 IT서비스 기업의 사업연속성 확보를 위해 BCP가 준비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IT서비스 기업에 몸담고 있는 구성원들의 안전의식은 해당 기업의 안전문화로 나타난다. 건설업이나 제조업과 달리 산업재해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진, 화재 등의 재난 상황에 대한 준비도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IT서비스 기업이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구성과 역할을 정의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구성원들의 안전의식 수준을 측정·분석하였다. 설문 문항의 구성과 각 문항의 답변을 분석하여 구성원들의 안전의식 수준을 개인의 성향이나 직무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분석하고자 한다.

3. 결론

3.1.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의 필요성

설문조사에 대한 텍스트마이닝 결과 IT서비스 기업의 구성원들은 재난안전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과 동기부여를 원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재난 안전 업무에 대한 전담부서의 필요성 검토를 제언하고 효과적인 교육, 홍보활동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학생회원 · 선문대학교 일반대학원 산업공학과 gjwldnd6634@naver.com

3.2. 안전문화 수준 측정

설문조사 결과 경영진의 리더십이나 안전의식은 높은 반면, 협력회사 참여, 성과관리 및 동기부여 측면에서는 낮게 측정되었다. 각 설문 문항별로 답변을 정리하여 IT서비스 기업의 구성원들에 대한 안전의식 수준과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정종수 김호영 송진국(2017) 재해경감활동관리론

류현숙(2016) 재난안전 실무자의 업무 스트레스의 효과적 관리를 통한 직무만족도 및 조직몰입 제고방안.

나채준(2013)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이시바시 아키라(2015) 사고는 왜 반복되는가?